

# 세계 속 끝없는 합성 '임 행진곡' 산자여 따르라



## 임을 위한 행진곡

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
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
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
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

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
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합성  
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
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



'임을 위한 행진곡'은 광주의 노래를 넘어 민중  
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세계인들의 노래다.  
올해 대중화·세계화 일환으로 추진된 체코 프  
라하 공연(왼쪽 위)과 5·18 38주년을 맞아 올  
해 스토리펀딩으로 제작된 영화 '임을 위한 행  
진곡' (가운데), 전남대 교정에 있는 윤상원 열  
사 흉상(오른쪽).

### 그시대 그 노래 다시 부르는 '임을 위한 행진곡'

(10) 에필로그-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<끝>

민초들 사이서 불리는 격조있는 격정의 노래  
문화콘텐츠 제작 등 대중화·세계화 사업 통해  
'민주·인권 도시' 광주 브랜드 가치 견인해야

에는 각각 서울 예술의 전당과 일본 도쿄에서  
광주시장이 연주를 해 광주정신의 의미를 드높  
였다.

이처럼 올해 첫발을 떤 '임을 위한 행진곡'의  
대중화·세계화는, 그것이 지향하는 것처럼 기  
대를 갖게 한다. 음악이 마중물이 돼, 타 장르  
로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  
다. 그러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공  
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요건이  
있다.

바로 배후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. 안정  
적인 시비와 국비 지원은 모든 사업이 그렇지  
만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다. 아울러 노래의  
뮤지컬, 스토리, 미디어아트, 국제포럼, 악보  
표준화 작업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. '임을  
위한 행진곡'만큼 광주 정신을 브랜드화할 수  
있는 '원소스 멀티유즈' (OSMU)는 없다. 노  
래라는 콘텐츠를 2차, 3차 장르와 산업으로 연  
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창의적인  
작업이기 때문이다.

원작자인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
은 "주인공들의 유적지를 발굴해 기념화하는  
프로그램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불리는 곡  
들의 악보 표준화가 필요하다"며 "임을 위한  
행진곡'의 소재가 된 '영혼 결핵식' 같은 경우  
스토리텔링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않  
을 거 같다"고 말했다.
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\*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  
니다.

'임을 위한 행진곡'은 광주만의 노래가 아니  
다. 물론 우리나라만의 노래도 아니다. 동남아  
국가인 라오스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일본  
등 세계 민초들 사이에서 불리는 세계인의 노  
래다. 광주의 정신이 세계 민주화와 인권에 대  
한 염원과 맞닿아 있다는 증거다.

이 말은 다시, 오늘의 광주에 부여된 책무가  
적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한다. 광주의 정신이  
응결된 노래를 세계화시켜야 할 당위가 있다는  
것이다. 유려하면서도 비장비가 갖는 곡조와  
서정적이면서도 유장한 노랫말은 낮은 곳에 처  
한 '사람다운 삶을 갈구하는 이들'을 위로한  
다.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고, 담담하면서도  
애상이 주는 자장은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을  
준다.

◁탄생비화와 전개과정 등 조명  
본 기획은 지금까지 광주의 노래 '임을 위한  
행진곡'의 탄생 비화와 전개과정, 다양한 콘텐  
츠로 제작된 내력, 한동안 제작이 금지됐던 배  
경, 그리고 다시 불러줘야 하는 이유 등 다양한  
관점에서 조명해왔다.

또한 민중가요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숨겨  
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현대사의 변  
곡점이 됐던 몇 가지 사건을 압축해 그 과정에

서 불렀던 처절하면서도 슬픈 노래들을 살펴보  
았다. 제주 4·3 추모곡 '잠들지 않는 남도'에는  
민중의 애담은 역사가, 관리들의 학정에 농민  
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서며 불렀던 '새야 새  
야'에는 녹두장군의 의로운 기상이, 80년대 군  
부독재에 항거하며 시민과 학생들이 불렀던  
'타는 목마름으로'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 
투영돼 있었다.

아울러 프랑스를 근대국가로 전환시킨 프랑  
스 혁명의 이면을 고찰할 것도 수확이다. 앞서  
언급한 대로 프랑스 파리 혁명은 단지 한 국가  
의 체제와 민주주의만을 변모시킨 것에서 머물  
지 않고 인근 유럽에 자유와 평등, 민주주의의  
를 확산한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  
미를 지닌다.

특히 격정적이며 가슴 벅찬 '라마르세예즈'  
가 혁명가에서 애국가로 불릴 만큼 프랑스 국  
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, 한동안 전  
임대통령들이 듣기를 거부해 '임을 위한 행진  
곡' 제작을 금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에 시  
사하는 바가 크다. 국민들의 사랑을 입고 있  
는 것은 노래에 담긴 정신이 보편성과 영원성  
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.

"피로운 깃발을 올려라! 우리 강토에 올려려

지는 감직한 적군의 합성을 들으라. 적은 우리  
의 아내와 사랑하는 이의 목을 조르려 다가오고  
있도다! 무기를 잡으라, 시민동지들이여!" '살  
밭하고 선혈이 낭자하는' 프랑스 국가(國歌)인  
그 노래에는 날것 그대로의 격정적인 감정이 깃  
들어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준동케 한다.

'임을 위한 행진곡' 또한 듣는 이에게 무한한  
감동과 격조 있는 격정을 안겨준다. 킷소리로  
흥얼거리기만 해도 가슴이 아련해지며 눈시울  
이 뜨거워진다. "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  
이 한평생 싸우자던 뜨거운 맹세. 동지는 간 데  
없고 깃발만 나부껴.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  
지 말자."

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평생 싸우자고 뜨겁게  
맹세를 했던, 동지는 스러지고 허공에 깃발  
만 나부끼는 무정하고 불의한 시대가 떠오른  
다.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고 사라질 뿐인 무정  
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, 인간의 존엄과  
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노래는 그래서 생명력  
이 있을 수밖에 없다.

◁모두의 제창을 넘어 대중화·세계화로  
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'임을 위한 행진곡'  
대중화, 세계화사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  
작, 보급, 활용을 토대로 민주 인권도시로서의

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견인한다는 데 초점이  
맞춰져 있다.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2022  
년까지 5개년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올해 1  
차년도는 '임을 위한 행진곡'을 관현악곡으로  
제작, 공연하는 데 중점을 뒀다.

사업의 연장선에서 '임을 위한 행진곡' 체코  
프라하 공연이 지난 7월 체코 프라하(리히텐슈  
타인 궁전 내 마르티누홀)에서 성황리에 펼쳐  
졌다.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(야나체필하모  
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)의 지휘와 체코내서  
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된 체코 공  
연은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.

또한 지난달 16일에는 국내외 유명 작곡가  
들이 창작 관현악곡으로 재탄생시킨 '임을 위  
한 행진곡'이 세계적인 작곡가 마이클 도허티  
와 만났다. 광주문화재단 대극장에서 열린 광  
주시향 특별연주회에서 '임을 위한 행진곡'을  
모티브로 한 마이클 도허티의 창작 관현악곡  
'민중의 노래'가 1부 마지막 곡으로 초연돼 갈  
채를 받았다. 작곡가 마이클 도허티는 슈퍼맨,  
Jackie O(재키 오, 케네디 대통령 부인), 엘비  
스 프레슬리 등 미국의 대중문화를 작품의 소  
재로 삼아 '음악계의 앤디 워홀'로 불리는 세계  
적인 작곡가로 명성이 높다. 지난 10일과 12일

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: 2018. 9. 1(토) ~ 11. 30(금)

|   |  |   |
|---|--|---|
| <p><b>축제 1</b> 객실 가을 패키지</p> <p>객실 리모델링 기념<br/>가을 패키지 <b>60% DC</b></p> | <p><b>축제 2</b> 1층 레스토랑 '테마니' 스파게티 &amp; 스테이크 축제</p> <p>커피 ..... 3,000원<br/>스파게티 ..... 13,000 ~ 16,000원<br/>스파게티 코스 (스프+샐러드+스파게티+커피) ..... 22,000원<br/>돈가스 코스 (햄+스프+샐러드+돈가스+디저트+커피) ..... 18,000원<br/>안심스테이크 코스 (햄+전채요리+스프+샐러드+스테이크+디저트+커피) ..... 50,000원</p> | <p><b>축제 3</b>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</p> <p>1층 티파니 이용고객 ₩15,000당<br/><b>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</b><br/>(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)</p> |
|---|--|---|

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☎ (062)228-8000, 221-4101